

11월 전교학생자치회의

11월 전교학생자치회의가 11월 26일 화요일 8시 20분 학생자치회실에서 열렸다. 12명의 학생이 출석했으며 3가지 안건을 토의했다.

첫 번째 안건은 12월 학생자치회 나눔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안건이었다. 추운 겨울날씨를 생각해 학생자치회에서 학생들에게 핫팩을 나눠주자는 의견이 나와 12월 5일 목요일 등교시간에 학생들에게 핫팩을 나눠주기로 하였다.

두 번째는 학생자치회실에서 필요한 물건과 관련한 안건으로 학생자치회 구성원들이 모두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추가로 구입하는 의견이 결의되었다.

마지막 안건은 학생자치회실 관리문제에 관한 안건이었다.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먼저 학생자치회의실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학생자치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반 동아리 학생들에게 당부하자고 결의하였다.

언어의 향연 교내 독서 토론 대회

11월 29일 솔내음 도서관에서는 합리적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 및 배려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5, 6학년を対象으로 교내 독서 토론 대회를 개최하였다.

지정 도서는 거짓말과 진실을 다룬 거짓말 학교로 '선의·공익의 거짓말은 필요하다.'는 논제로 진행하였다.

그동안 갈고뚫은 언어 논리가 돋보인 6학년 2반 이 OO 학생이 우승을 차지했다.



대회에 참여한 6학년 오OO군은 '독서토론 대회에 참여해 보니 입론서를 작성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

교차 질의식 독서 토론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'라고 소감을 전했다.

장애학생성교육

11월 28일 목요일 1교시에 통합지원반에서는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시간을 가졌다.

이전 시간에 이어 그림책과 연계한 성교육을 진행하였다. '도와주세요, 빨래할머니'라는 책에는 성폭력과 관

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. 사례가 나올 때마다 아이들은 사례의 주인공의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,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.



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 사례와 같은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. 앞으로도 실천 가능한 방안을 더 모색해 보고 생활 속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.

'함께 읽고 성장해요.' - 책과 노니는 맘

솔내음 도서관에서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책을 읽고 정착하는 문화를 위하여 매달 어머님들과 함께 아동도서 한 권을 선정하여 읽고 토론하는 [책과 노니는 맘] 동아리를 운영한다.



회원들은 책을 읽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비경쟁식 독서토론을 진행한다. 토론을 하면서 회원들은 책 속에 나오는 삶을 간접경험하고 인물들의 고민을 이해하면서 사고의 폭을 확장해 간다. [책과 노니는 맘]에서는 주로 아동 도서를 선정하기 때문에 회원들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킬 수 있다.

[책과 노니는 맘]은 가정과 학교,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하는 의미 있는 학습 공동체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 동아리 회원 가입은 매년 3월 초에 신청을 받는다.